

체화이론과 신유물론, 서로 만나기

혹은 사회성 체화

Social Embodiedness

최종덕(독립학자)

2024년1월12일

/체화인지연구단 발제토론/

물질의 스펙트럼	욕망의 물질	통속 유물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사회의 물신주의를 일컫는 <u>메타포로서 유물론</u>
	토대의 물질	존재론적 유물론	데모크리토스 유물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화적 세계해석에서 벗어난 자연주의 세계관
		과학주의 유물론	형이상학적 유물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심론과 대비되는 존재론의 태도
			기계론적 유물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적 의미의 기계론적 유물론 • 과학방법론에서 환원주의의 기초
	토대/관계의 물질	동력학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 변화의 토대 위에 관계적 역사변동 • 팍차있어 다루기 벅찬 자유의 필드 • 물질과 삶의 일탈declination • 생명의 우연성, 그러나 무작위가 아닌 숨겨진 인과로서 <u>복잡계</u>
	관계의 물질		에피쿠로스 유물론	
	관계의 물질	신유물론	생태학적 유물론 (<u>레빈스</u> 와 <u>르윈틴</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고스, 초월성, 인간중심주의 탈피 • 부업토로서 인간/비인간 공생의 하이브리드 • 물질/의식, 자연/문화, 객체/주체의 이분법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거나 원래 그 사이의 경계가 없었던 엄힘의 관계 • 배제가 아닌 포용inclusion하는 비인간 수행성 혹은 ANT • 물질의 능동성(그러나 생기론을 경계함)
라투르의 행위자연결망이론				
구성주의/탈자연화(반자연주의)				
자연주의 경향 (de Waal, <u>해러웨이</u>)				
발생의 물질	체화주의	행위실재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안경과 실험실 현미경은 내 눈의 연장extended. • 인지는 몸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는 과정 • 인지활동은 바디를 통해embodied 의미획득 • 내가 <u>행화하는</u> 것이 아니라 행화를 통해서 나와 세계가 <u>자기조직된다</u>. 	
		네일 ^{T. Nail} 의 능동적 신유물론		
		확장 인지론		
		행동이 주어보다 <u>앞선 행화주의</u>		
		생멸변화의 불교유물론(<u>바렐라</u>)		

© philonatu.com

* 참조 - 표 안의 분류와 구별은 명확한 경계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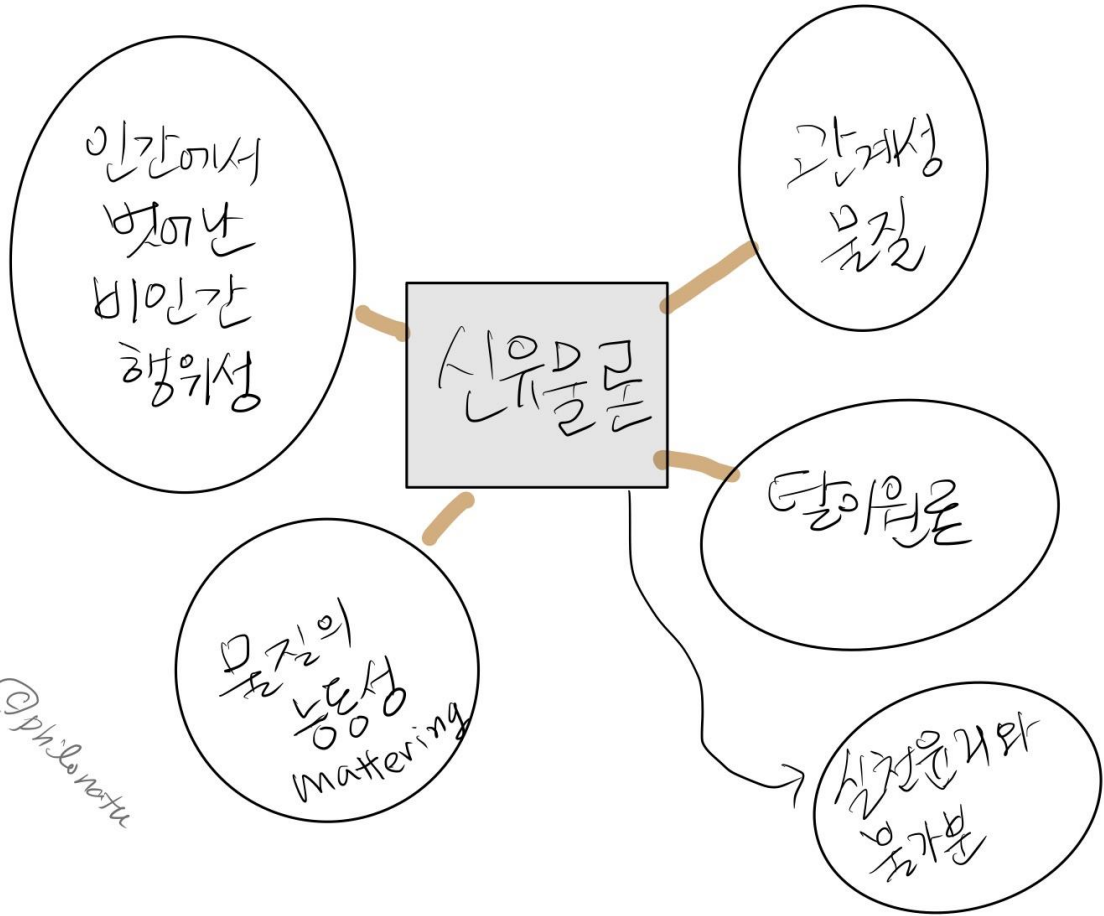
'사회'

- (통상적 의미) 인간과 다른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고정된 알고리즘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치사회학적 시스템인 경우
- (복잡계 일반) 부분과 전체, 요소들과 전체 사이의 관계가 환원적이지 않고 복잡계 시스템인 경우
- (생태적 의미; inclusive) 인간만의 배태적 범주가 아니라 인간이 아닌 종species에서부터 무기물의 자연종 및 인공물까지 포함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있는 생태적 시스템인 경우

체화주의와 신유물론에서 보는 바디와 마인드

- (환원주의) 마인드는 바디의 국소화 **localized**를 통해 (전부 혹은 일부) 설명할 수 있다.
- (표상주의) 마인드(언어/기호)는 바디로부터(외부세계로부터 혹은 2차적으로 관념화된 무엇무엇으로부터) 표상화된다 **represented**.
- (체화주의) 마인드는 바디를 통해 **embodied**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
- (행화주의) 바디로 발현되는 행위가 세계를 조직한다. 그런 행위 **endo-action** 즉 행동수행은 마인드의 의지가 아니라 바디의 발현 **enactioned**이다.
- (신유물론1) 마인드는 바디와 하나로 얽혀져 **entangled** 있다.(버라드 신유물론) : 마인드와 바디의 관계는 상호작용 **inter-action**의 관계가 아니라 내부작용 **intra-action**의 관계다.
- (신유물론2) 마인드는 바디의 물질화 **mattering** 과정이다. : 물질화되는 과정은 개체 차원이 아니라 관계 차원에서 수행된다. 개체 마인드가 아니라 포괄적(사회적) 마인드이다.

'마인드'와 '바디'는 수사화된 용어로서, 마인드는 인지과정을 함의하며 바디는 경험의 감각작용을 함의한다.



메를로-퐁티
(행동외관 1942/2008)

카트와 다르게
현상을 의식에서 찾지 않고
주관적 몸에서 찾는다. (1968)

신체단상이
body schema
기반한
지각이론

반생형적
존재론으로서
신체론

©philobnatu

의체-환경
결합

자기생성적
행동주의

embodied
relations of
the flesh
le Chair (살)

(Merleau-Ponty
1968)

내부없는 외부(몸) - 외부없는 내부(마인드)
에서 내부를 지닌 몸과 외부를 지닌 주체성으로

몸의 세계 지향성 → 몸과 세계의 연합
몸은 생성에 참여한다.
↓
우주(세계)는 **살**로 되어 있다.
(신체는 창조?)

해러웨이(1991/1997) 회절방법론을 이어받은 버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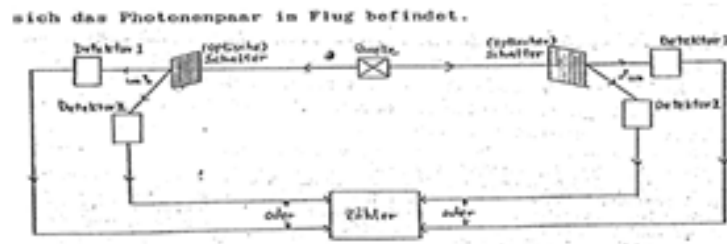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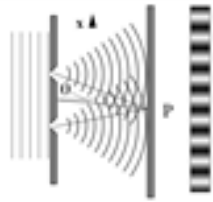
반영 reflexive methodology

- 재현주의(실재를 그대로 기술한다는 뜻)는 knower/known 분리에서 출발한다.
- 객관주의, 물질수동성
- 대상 그대로 기술하는 미러링의 관찰방식, 관조하는 태도holding the world at a distance(91)
- 원자론과 동일성의 존재론geometries of sameness 반복과 복사
- 인간중심(자아중심/남성중심)
- 물질과 의미의 잘못된 이분법의 재현주의를 버라드는 강하게 비판한다.(88)

회절 diffractive method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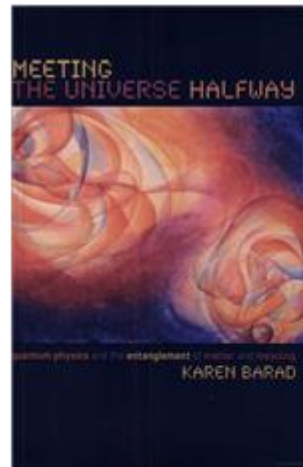
- 수행성performativity을 통한 참여로서 차이의 패턴을 생성하며, 참여 이전까지 세상은 미확정의 타자이다. 주체/객체 인간/비인간의 분리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회절이다.(91)
- 관계 속 사물을 통찰하며 차이를 존중하며 윤리적 참여의 행이가 곧 존재-인식론이다.(2007, 50)
- 타자와 자아 사이의 내부작용으로 그 경계가 없다.
- 해러웨이의 공동생성 sympoiesis, 물질의 능동성을 성찰하면서 차이 드러내기
- 인간/비인간 모두 자연의 일부로서 얽힘의 존재-인식-윤리적 존재

얽힘 entanglement



닐스 보어의 양자역학(코펜하겐 해석)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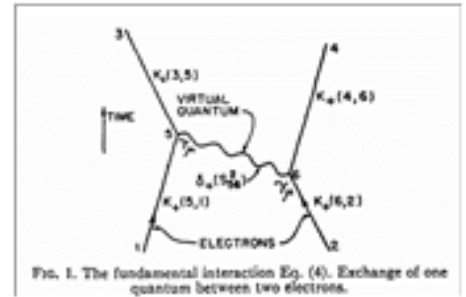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2007



Barad, K.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우주, 서로가 서로에게 만나다:
양자물리학 그리고 물질과 의미의 얽힘. 2007

맞닿음 touc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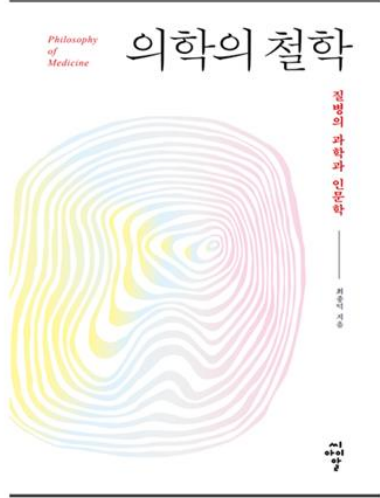
R. 파인만의 양자장론 기반

On Touching: The Inhuman that Therefore I Am
Am. Differences 23(3),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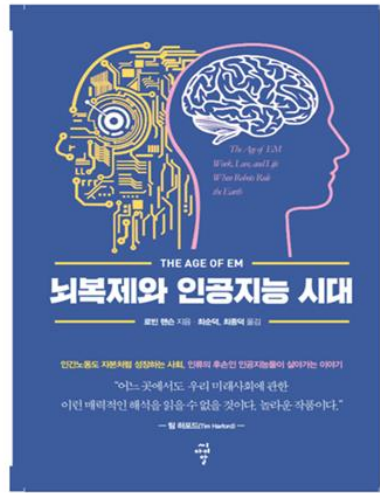


Barad 2012, 맞닿음, 경계없는 비인간.

발표자의 최근 연구



2021년 대한민국 학술원
인문부문 우수도서



2020년 대한민국 학술원
과학부문 우수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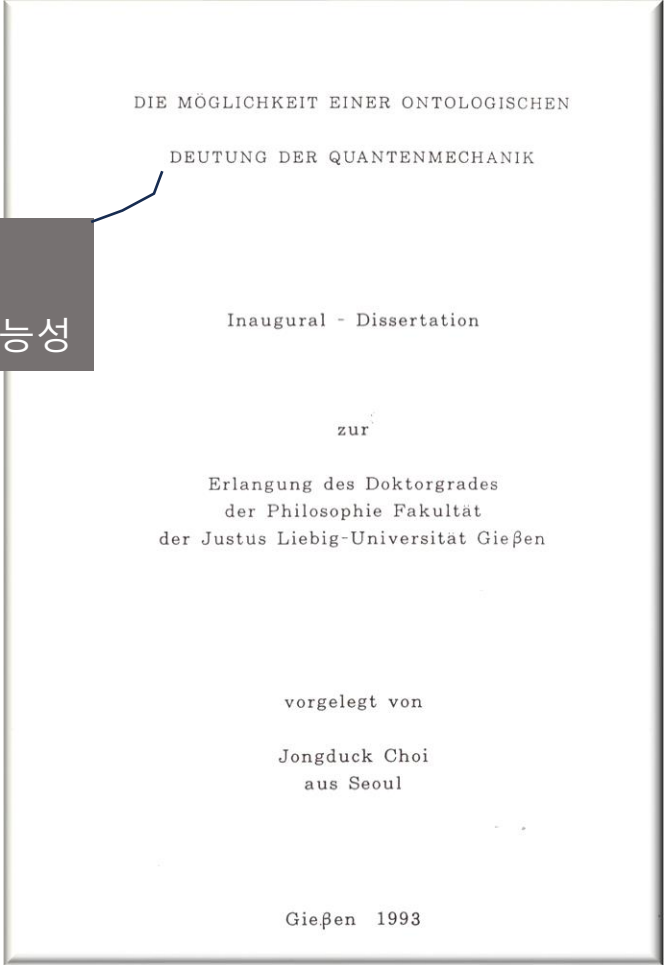


2023년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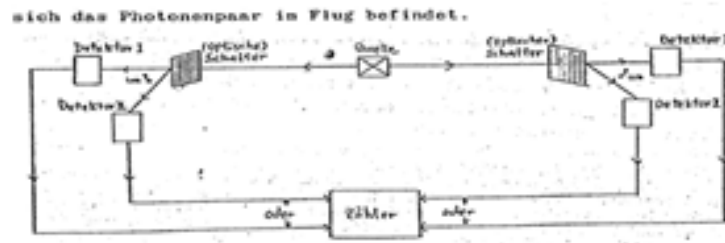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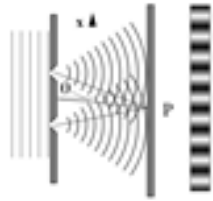
편집

발표자의 학위논문

양자역학
존재론적 의미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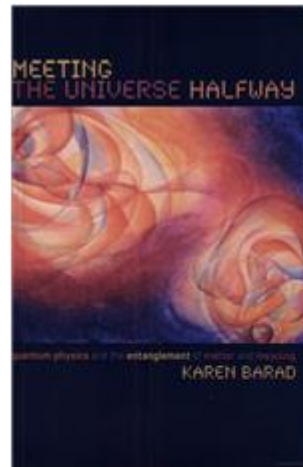


얽힘 entanglement



닐스 보어의 양자역학(코펜하겐 해석)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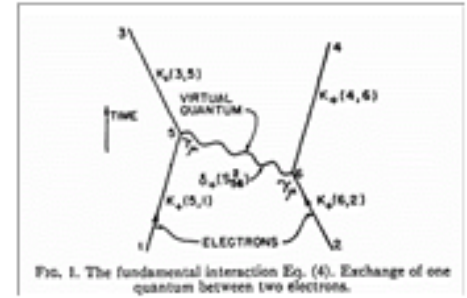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2007



Barad, K.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우주, 서로가 서로에게 만나다:
양자물리학 그리고 물질과 의미의 얽힘. 2007

맞닿음 touc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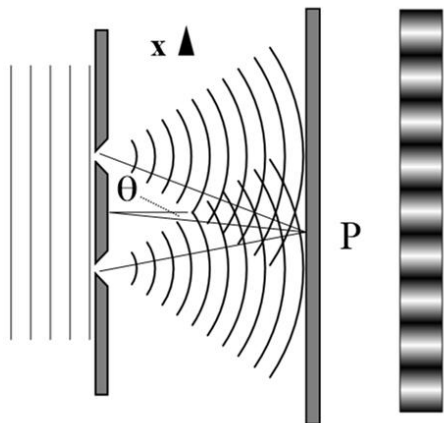


R. 파인만의 양자장론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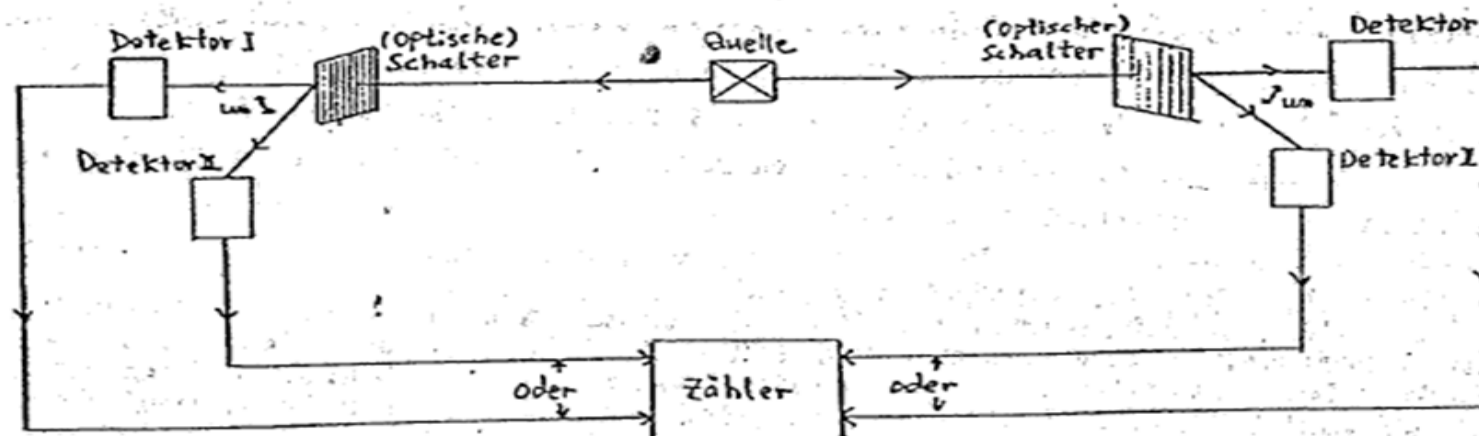
On Touching: The Inhuman that Therefore I Am
Am. Differences 23(3), 2012



Barad 2012, 맞닿음, 경계없는 비인간.



sich das Photonenpaar im Flug befind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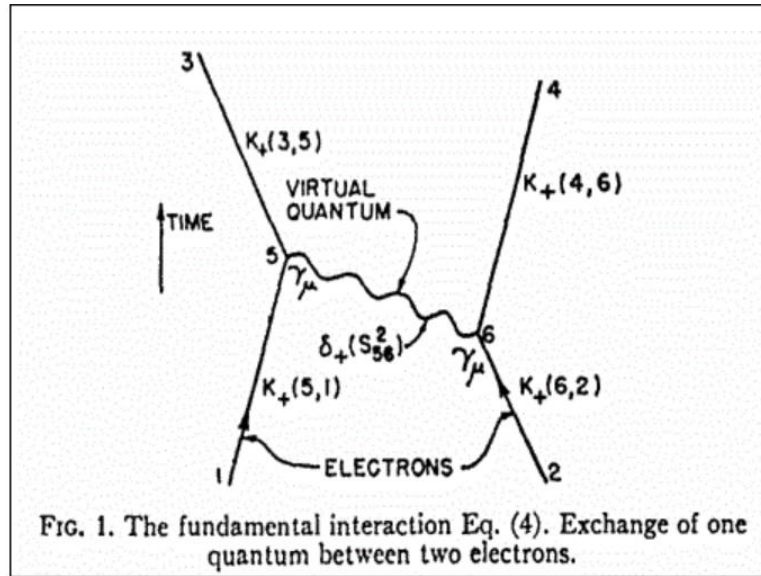
EPR, 1935

Niels Bohr,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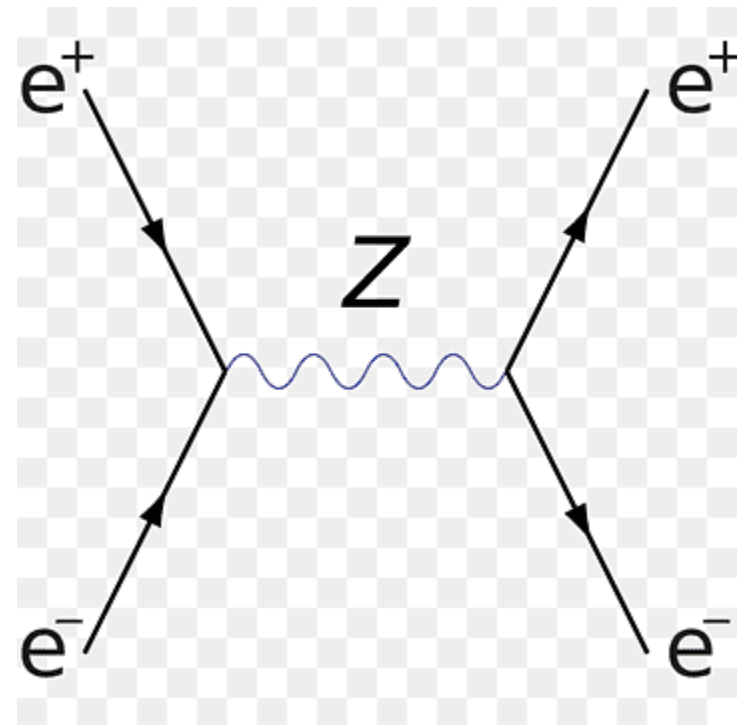
[Aleen Aspect, 1982](#)

First Published Feynman Diagram, 1949

(not included in exhib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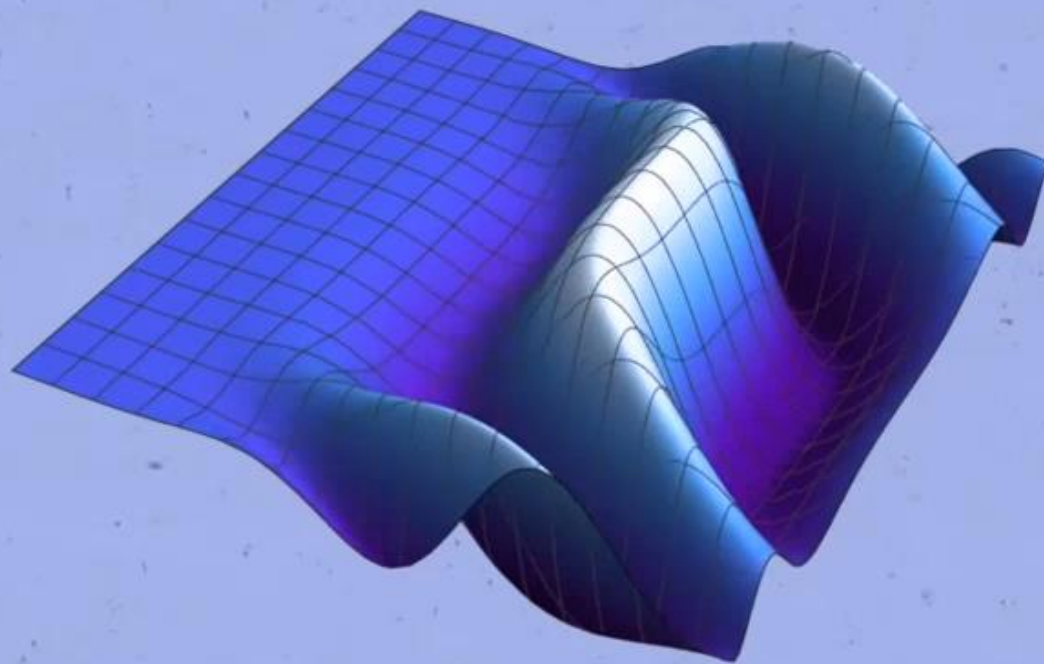


One of Richard P. Feynman's many contributions to physics was the invention of "Feynman diagrams," which are simple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complex formulas that describe the behavior of subatomic particles. This was the first published Feynman diagram. It appeared as Figure 1 on page 772 of Feynman's paper "Space-Time Approach to Quantum Electrodynamics" published in Physical Review volume 76, number 6, pages 769-789 on September 15, 1949.





FIELD THEORIES



진공-물질-양자장

- 진공은 에너지 최소 바닥상태일 뿐이며, 물질(전자/반전자)과 장에서 요동을 나눠가지는 동적 상태다. 양자장에서 바닥에너지 상태가 되면 진공이고 그 양자장이 들뜬 상태로 되면 물질(입자)이 되는 것이다.
- 이렇게 진공과 물질 그리고 장은 서로에게 **얽힘** 관계이다.
- 전자는 반전자와 얽혀있지만 서로 맞닿아 있지는 않다. 광자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소멸되었다가 다시 생성되는 짧은 순간($< \sim 10^{-21}$ sec)을 통해 물질은 맞닿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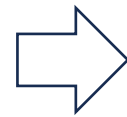
캐런 버라드가 든 예:

거미불가사리 : 국소적 뇌/눈이 없지만 온 몸이 뇌이며 눈이다.

온 몸에 (운동 및 감각)신경세포가 퍼져있다.

즉 존재 자체가 인지시스템이다.

(Barad 2007, Chap.8)



불가사리의 신체화embodiment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환경에 대응하며 신체라는 기하학적 경계에 종속되지 않는다. 즉 몸은 세계의 환원론적 요소가 아니라 몸과 세계가 일대일로 대응되는 전체같은 일부이다. 이것이 바로 몸의 수행성(행위/행화)이다.

행위는 관계이며
상황상황이 아니라
개체의 기능의 관계다.

1. 허드슨의
행위성이라

doing과 being
의 결합체

사유는
몸을 떠나
안다

관찰(지각) 수단과
관찰자(주체)
경계가 없거나
연결되어 있다.

Matter가
muttering 되는
과정

행위성의 주체가
꼭 인간으로
제한될 필요는
없다
enactment

공유된 2자체를
행위적이라

@philonata

물질과 의미가 내부작용으로 얽혀있다.

- 행위실재론 : 존재의 기본단위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현상phenomena이다. 여기서 현상이란 관계 성격이며, 물질과 의미, 자연과 인간등이 분화되지 않은 현상 안에 얽혀있다. 현상은 내부적으로 연결intract되어 있으며, 우주는 내부작용 intra-action으로 생성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 상호작용은 기존 개체들 사이의 고전역학적 상호관계이지만, 내부작용은 관계가 선제하여 그 관계 속에서 개체들이 비로소 드러나는(출현, emerge) 작용을 말한다.(33)
- 하이젠베르크에서 입자 위치와 운동량을 (인식론 측면에서)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며, 닐즈 보어에서는 입자 위치와 운동량의 존재론적 결정값을 동시에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19)
- 버틀러에서 젠더는 gender가 아니라 gendering이듯이, 버라드에서 물질은 matter가 아니라 mattering이다.(2007, 57)
- being + knowing + doing = 존재론-인식론-윤리학의 얽힘
- 행위doing와 사유thinking의 상보성(21)
- (예) 번개는 신화시대에서 귀어하지만 과학시대에서 땅과 구름이 얽혀 만나는 일상의 현상이다. (Nature's Queer Performative 2012)

무경계와 자기-상관성으로 맞닿아있다.

- 맞닿음은 응답능력respons-ability이다.
- 세계의 모든 것(물질과 의미)은 주어진 알고리즘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수학을 벗어난 탈선을 지향한다. 중심이 없으며 물질은 내부관계된 요소들이다.
- 입자와 진공으로 구획된 데모크리토스 존재론에서 벗어나 입자-진공-장field은 내부작용하는 관계항이다. 즉 물질은 진공으로 다시 진공에서 물질로 변성하며 생성소멸한다. 이는 정체성의 해체를 의미한다.
- trouble matters(무한, 기이, 돌발성): 자기-상관성으로서 입자와 진공의 비분리성은 자기가 자기 자신과 맞닿아 있을 보여준다. 물질은 접힘 상태이다. 행위에 행위자actant가 선제한다는 기존 존재론에서 탈피한다.
- 응답의 물질화와 윤리 - 우리 각각은 맞닿음을 통해 타자에 대하여 책임을 갖게 된다. 윤리성은 모든 존재/비존재를 통합하여 맺어진 이방인에 대한 환대를 포함한다.
- 물질화: 존재론적 비결정성, 라디컬 개방성, 무한 가능성(160)
- 정체성과 국소성, 분열과 고립, 배제 대신에 관계와 얽힘 책임과 포용inclusion

캐런 버라드 신유물론, 행위실재론 agential Realism

- ① 양자역학에 기반하여 실재계 real world를 설명하므로 물질형이상학이다. 버라드는 이를 “실험형이상학”으로 표현한다.(2007, 7장) 자연의 인과적 현상도 내부작용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다.
- ② 인간/비인간, 물질/의식, 자연/문화, 객체/주체, 자아/타자, 자기1/자기2, 과학/인문학, 존재/가치 이분법을 붕괴한다.
- ③ 로고스, 초월주의, 인간중심주의를 탈피한 자연문화론(해러웨이 용어)이다.
- ④ 버라드 행위실재론은 물질 기반이라는 점에서 유물론이지만(41), 물질은 그 실재성이 내부-작용에 있으며 수행/행위와 얽혀있어서 책임과 윤리없는 존재-인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체화이론

1. 바디의 발현으로서 마인드는 비로소 의미를 획득한다.
2. 개별 바디마다 행화의 발현이 다르지만,
3. 체화 양식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



바디의 사회화가 아니라
바디에 체화하는 양식이 사회적이다.

신유물론

1. 인간의 바디는 다른 바디와 얽혀있다.
2. 그런 바디들은 다른 모든 종과 세계 내 사물과 얽혀있다.
3. 독립된 바디는 없다.